

국정기획위에 주요 현안 해결 건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군산 개최… 강임준 시장, 새만금 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요청

강임준 군산시장은 10일 시청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비롯해 새만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등 군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군산이 유일한 개최지였다.

강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단순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절실하다.”라 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하고, 인접 지자체와 경계에 있지 않는데도 이견을 제출해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가운데)이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게 지역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이어 “이견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 직후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산=김만호 기자

은파호수공원 악취 해결 ‘본격 시동’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주도로 관계기관 협력 방안 논의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은파호수공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며 적극적인 자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9일, 김우민 의장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와 하수과,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등 주요 관계 기관들과 함께 모여 은파호수공원 악취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은파호수공원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이 지목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오염원의 유입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수 및 우수 관로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호수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악취의 주범 중 하나인 녹조 제거를 위해 제거제를 살포하여 제거하기로 하였으며, 물속에 산소를 직접 공급하여 정체된 물을 순환시키고 악취를 저감하며 녹조 현상



개선에도 효과적인 미세기포장치 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은파호수공원의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김우민 의장은 “은파호수공원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원인을 밝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두의 협력을 통해 은파호수공원이 앞으로 계속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군산시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청렴 약속 데이·골든벨 행사 등 개최

청렴도 제고·공정한 조직문화 확산 다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10일 다양한 청렴 행사를 진행하며, 청렴도를 높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군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2025년 청렴 약속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첫 순서로는 ‘청렴 실천 공동선언 및 청렴 결의대회’가 열렸다.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함께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군산’ 실천을 위한 공

동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 세 기관 대표들은 부패 예방과 공정한 행정문화 정착에 힘쓰며,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군산시는 과거 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아쉬움을 딛고 ‘청렴도 꼴찌 탈출’을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층 강화된 책임감을 갖고 함께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청렴 실천 공동선언’ 다음으로는 전 직원 대표가 함께하는 ‘청렴 결의대회’가 열렸다.

‘청렴 결의대회’는 직원 모두가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한 업무 수행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가 진행되면서 대회 열기는 더욱 절정으로 달아올랐다.

‘청렴 골든벨’은 참가자들의 청렴 관련 지식을 점검하는 동시에 청렴 의식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 퀴즈 내용 역시 청렴 관련 법령, 부패 예방 사례, 윤리 규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 황동·남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전환

위탁 기념식 개최…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질적 향상 기대

익산시가 지역 노인복지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인다.

익산시는 10일 황동 및 남부권 노인복지관에서 민간위탁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장, 시의원, 권오국 신광재단 대표이사,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복지관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기대를 나눴다.

이번 민간위탁 전환 조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복지관은 기존의 시 직영 체제에서 민간전문기관 운영체제로 변경된다.

지자체 직영 복지관은 안정적인 예산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한계와 혁신적 서비스 도입의 어려움 등 개선 과제가 존재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전환을 결정했다.

운영을 맡게 된 사회복지법인 신광재단은 익산시 노인복지관(2005년 개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2021년 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우수 복지관으로 평가받으며 운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민간위탁 전환으로 황동 노인복지관은 북부권 노인복지관의 분관, 남부권 노인복지관은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서, 14~18일 ‘한국대학양공선수권대회’ 열려

익산시가 전국 규모 양공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하며 대학 양공 최강자들의 격전지로 떠오른다.

익산시는 ‘제28회 한국대학양공선수권대회’가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익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 단위 양공 선수권 대회로, 한국대학양공연맹이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양공협회가 주관한다. 전국 300여 명의 대학 양공 선수들이 참가해 5일간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 된다.

특히 원광대학교 양공부 김영은 선수의 활약이 주목된다.

김 선수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공대회 대학부 여자 개인전에서 당당히 3위를 기록하며 기량을 입증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관람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고구마버거 세트’ 출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익산시가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지역농산물 우수성도 알리는 특별 이벤트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한국팍도날드의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출시를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익산시는 10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운영한다. ‘고향사랑이(e)음’ 또는 민간플랫폼 ‘위گی브’를 통해 익산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9,200원 상당의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기부자는 세액공제 100%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익산시 답례품, 익산 고구마 버거 쿠폰까지 총 13만 9,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